

투데이 칼럼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및 주변 중동 국가들은 100년 넘게 충돌하고 있다. 중동전쟁의 근원은 땅 문제다. 최근 전쟁으로 대외 명령이 내렸다. 그런데도 가자지구 주민 수십만 명은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워 떠나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는 과연 누가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땅에 살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절실한 문제다. 일각에서는 시오니즘 즉 시온주의 혹은 유대인 민족주의가 없었다면 분쟁도 없다고 말한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 떠돌이 삶을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시온 즉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는 시온주의가 분쟁의 시초라는 것이다. 1947년 유엔은 종교적으로 양측에 모두 중요한 예루살렘을 국제 관리 아래 두었다.

나머지 땅은 두 국가로 분할했다. 유대인 세력은 찬성했지만 아랍 세력은 '팔레스타인에게 불리하다'며 거부했다. 그 뒤 두 민족 간 유혈 충돌이 늘어났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건국을 선포했다.

그 이튿날 팔레스타인 세력과 힘을 합친 아랍 국가 동맹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른바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하며 건국 당시보다 더 많은 영토

를 장악한다.

팔레스타인 주민 약 7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팔레스타인은 이를 '재앙' '질멸'이라는 뜻의 아랍어 나카바라고 부른다. 이들은 요르단이나 이집트 등 주변 아랍 국가에 정착할 수만은 없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및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등 주변 아랍 국은 1956년 수에즈 운하 위기, 1967년 6월 전쟁(6일 전쟁), 1973년 욕기 푸르 전쟁 등으로 충돌했다.

모두 이스라엘의 승리였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서안지구, 시나이반도, 골란고원을 손에 넣었다. 가자지구 등으로 유대인 집단 이주가 시작되자 팔레스타인 세력은 테러를 비롯한 유혈투쟁으로 맞섰다.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1964년 설립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대표적이다. PLO는 1972년 린덴 울

립픽 이스라엘 선수단 학살, 항공기 납치, 폭탄 테러 등을 계속했다. 1987년 이슬람 성직자 아메드 야신 이 '이스라엘 존재 질멸'을 목표로 이집트 수니파 근본주의 조직 무슬림형제단에 뿌리를 둔 하마스를 설립했다.

1993년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아라파트 PLO 의장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대한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공인하는 평화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라빈 총리는 이 협정에 반발한 이스라엘 극우파 청년에게 2년 뒤 암살됐다.

5년여 지속된 유혈 분쟁을 끝내기 위해 2005년 미국, 러시아, 유엔 등이 중재에 나섰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에서 군과 정착민을 철수시켰다. 또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권리를 처음 인정했다.

정복규  
논설위원



### 사설 국민주 카카오의 추락

시세조종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로 인해 카카오 평판이 크게 실추됐다. 카카오 주가도 휘청거리고 있다. 카카오 경영진 리스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번 카카오 주가도 흔들리곤 마찬가지였다.

카카오는 4만 원 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다. 일명 '국민주'로 자리 잡기 전인 지난 2020년 5월 당시와 비슷한 가격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3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와 분쟁을 겪었다. 주당 12만 원에 진행되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주(國民株)란 정부의 관리하에 있던 공기업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보급하는 주식이다.

많은 국민들에게 주식을 분산·소유시킴으로써 기업에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이 마련되고 있다. 국민주신탁 가입자가 수령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 등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적 기능이 중요하며 경영기반이 정착되어 있어 배당이 가능한 안정된 기업의 주식이 보급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런 기준에 적합한 기업의 주식은 대체로 공기업이다.

포항종합제철·한국전력공사·외환은행 등의 주식이 국민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주가 보급된 직후 장기적인 투자 대신 단기적인 차익 소득을 목표로 매매된다.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다시 집중됨으로써 주식의 분산 소유와 소득의 재분배라는 원래의 정책에 어긋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75%가량 하락한 카카오 주가는 시세조종 의혹까지 겹친 탓에 회복이 요원해 보인다. 플랫폼 공동 카카오가 결연된 리스크로 무너지는 모습이다.

### 정음의 영원한 챔피언 최요삼

'영원한 복서 챔피언' 최요삼이 최근 정음 역사인물로 선정됐다. 정음시 영원면 출신 복서 고(故) 최요삼 선수는 1972년생이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건너가 영등포중학교 2학년 때 권투를 시작했다.

1993년 20세에 프로 권투 선수로 데뷔해 13연승을 거두었다. 1994년 라이트 플라이급 신인상을 수상하였고, 1995년 한국챔피언 1986년 라이트 플라이급 동양챔피언 타이틀을 일본 오사카에서 획득했다. 1999년에는 WBC 라이트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였다.

2004년에 WBA 플라이급 타이틀 도전에 실패한 후 은퇴를 선언했다가 2007년에 재기하였다. 2007년 9월에 WBO 플라이급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에 등극하였다.

2007년 12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광진구민 체육센터에서 열린 세계복싱기

(WBO) 플라이급 인터콘티넨탈 타이틀 1차 방어전이 열렸다.

최종 12라운드에서 도전자 헤리 아돌 인도네시아 선수의 오른손 스트레이트에 턱을 맞고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일어섰다. 판정승이 선언된 뒤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병원으로 후송 후 9일 후인 2008년 1월 3일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 뒤 가족의 동의를 얻은 뒤에 각각 2개, 신장 2개, 그리고 심장을 6명에게 기증했다. 그의 나이 35세였다.

최요삼 선수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장기 기증을 통해 생명을 내는 진정한 챔피언이다. 역사인물 선정을 통해 챔피언 최요삼의 고귀한 뜻에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2009년 1월에 발매된 합창 그룹 리쌍의 앨범 백야결연에 수록된 '챔피언'이라는 곡은 최요삼 선수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트럭에 실리는 '올해의 크리스마스트리'



올해 미국 뉴욕의 록펠러 센터 앞에서 크리스마스트리로 사용될 나무가 지난 9일(현지 시각) 뉴욕 베스탈의 기중차 집에서 트럭에 실리고 있다. 이 나무는 높이 약 25m, 무게 12톤의 노르웨이 가문비나무로 오는 11일 록펠러 센터 앞에 설치돼 29일부터 점등된다.

#### 파월 의장 연설 방해, 끌려 나가는 기후 운동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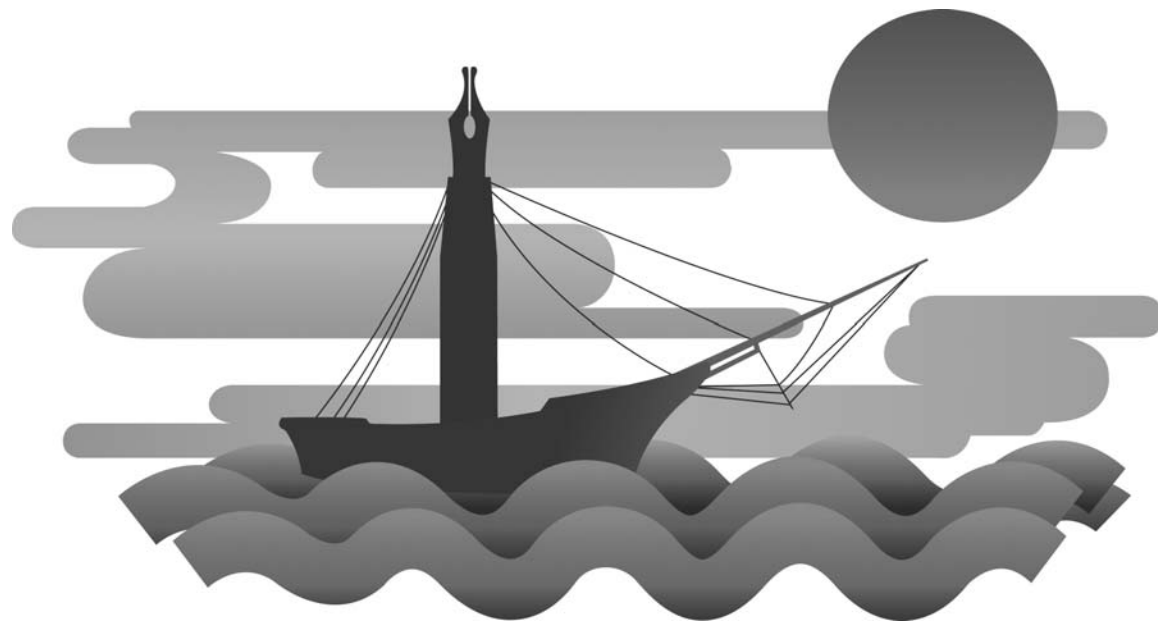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지난 9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주최로 열린 제24차 G20 글로벌 연구 컨퍼런스장에 난입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RB) 의장의 연설을 방해하던 기후 운동가들이 끌려 나가고 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